

p. 4

이 책의 저자

## 알렉상드르 뒤마 (1802~1870)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뒤마는 19세기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다. 프랑스 북부의 빌레르코트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네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지만, 1823년에 파리로 이주한 후 틈틈이 글을 쓰다가, 1829년에 《앙리 3세와 그 궁정》이라는 희곡을 발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재능 있는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831), 《앙토니》(1831) 등 1843년까지 15편의 희곡을 썼다. 또한 역사 소설에도 관심을 가져 《삼총사》(1844), 《몽테크리스토 백작》(1844~1845), 《철가면》(1848) 등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뒤마는 총 250여 편의 작품을 남겼고, 프랑스 역사를 풍부한 상상력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1870년 12월 5일 발작으로 사망한 후 고향에 묻혀 있었는데, 2002년 뒤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정부는 그의 유해를 국가 영웅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인 팡테옹으로 이장했다.

p. 5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대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된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이다. 프랑수아 피코라는 실존 인물의 삶에서 줄거리의 소재를 얻은 뒤마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진진한 내용 전개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날까지도 이 소설은 세계 곳곳에서 영화, 연극, 드라마, 만화 등으로 각색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젊고 유능한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선장의 후임자가 되었는데, 이를 시기한 동료 당글라르의 음모로 결혼식 도중 경찰에 체포된다. 그런데 그를 심문한 판사 빌포르도 당테스가 무죄임을 알면서 자신의 출세에 해가 될까봐 그를 외딴 섬의 감옥으로 보낸다.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당테스는 굴을 뚫어 탈옥하려던 죄수 파리아를 만나 삶의 희망을 얻는다. 박식한 파리아는 당테스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몽테크리스토 섬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도 해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된 파리아가 죽자, 그의 시체로 가장하여 탈옥에 성공한 당테스는 보물을 찾아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거듭나는데...

## 【제1장】 금의환향

**p. 12-13** 1810년 2월의 어느 날, 상선 파라우 호가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로 들어왔다. 한 남자가 항구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파라우 호를 보자, 작은 보트를 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 잘생긴 한 젊은이가 파라우 호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다. 작은 보트에 탄 나이 많은 남자가 그 젊은이에게 소리쳤다.

“당테스, 자넨가? 선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아주 슬픈 일이에요, 모렐 씨.” 젊은이가 대답했다. “우리 배가 치비타베키아 근처에 있을 때, 우린 용감한 르클레르 선장님을 잃었습니다.” “화물은? 화물은 안전한가?” 나이 많은 남자가 물었다. “네, 모렐 씨. 화물은 안전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얼굴을 돌려 선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렸다. 선원들은 신속히 살 뺐다.

**p. 14-15** “하지만 불쌍한 선장님은…” 당테스가 말했다. “그래, 그래, 선장에 대해 말해 보게.” 모렐이 말했다. “그기 물에 빠졌나?” “아뇨, 그분은 우리가 니폴리를 떠난 뒤 며칠 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원들을 쳐다보며 당테스가 말했다. “이만 실 하겠습니다. 저들을 도와서 뱃일을 해야 하거든요. 배에 타시면 사업부장 당글라르가 화물과 수익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모렐은 당테스를 보며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당테스는 비록 젊지만, 배 운행을 잘하고 있었다. 모렐은 어쩌면 자기가 죽은 르클레르를 대신한 선장을 이미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테스를 좀더 지켜보고 나서 파라우 호에 탔다. 당글라르는 그가 큰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왔다. 당글라르는 당테스보다 몇 살 위였다. 그 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글라르를 좋아하지 않았다.

**p. 16-17** “다시 배에 오르신 걸 환영합니다. 모렐 씨!” 당글라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사업이 아주 잘 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음, 당글라르, 가없는 선장을 제외하면 항해는 순조로웠다고 당테스한테 들었네.” 여전히 당테스를 쳐다보며 모렐이 대답했다.

“네, 선장을 잃은 것은 정말 안된 일이었죠.” 당글라르가 대답했다. “그는 당신과 당신 회사의 훌륭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젊은 당테스가 잘하고 있는 것 같군.” 모렐이 말했다. “젊은 사람도 훌륭한 선장이 될 수 있단네.” 당글라르는 젊은 당테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젊은 선장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당테스 때문에 우린 집에 늦게 도착하게 됐죠.” 당글라르는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선장이 죽은 후, 우린 마르세유로 곧장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린 이를 동안 엘바 섬으로 갔죠.”

**p. 18-19** 모렐의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자네들이 왜 엘바 섬에 머물렀나? 배에 문제가 있었나?” “아뇨,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린 그냥 둘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당글라르가 대답했다. 모렐은 당글라르의 걸을 떠나서 당테스를 불렀다. “당테스, 이리 오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당테스는 모렐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왜 엘바 섬에 머물렀나?” 모렐이 물었다. “그건 선장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저한테 그 섬

의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말했거든요.” 모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테스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자네, 니콜 레옹을 만났나? 그와 얘기를 했나? 이걸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자네도 알 거야!” “그가 저에게 말 했어요. 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디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이제 전 파리에 편지를 전달해야 해요.”

**p. 20-21**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나?” 모렐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전 읽 지 않았거든요. 전 그저 그것을 파리에 전해 줄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요.” “좋아, 당테스. 하지만 그 편지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일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나?”

모렐은 누가 듣고 있는지 않은지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이 얘기를 했다. 당글라르가 보고 있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네, 모렐 씨.” 당테스가 대답했다. 모렐은 당테스를 찬찬히 살펴 보았다. “자넨 젊지만 현명하니까. 당테스, 자네 바쁜가? 나와 저녁이나 함께 하지.” “최종하지만 선주님, 아버지를 뵈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버지를 만난 후에 봐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고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아, 그런가, 그 아름다운 메르세데스 말이지. 알겠네.” 모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p. 22-23** “휴기 좀 주실 수 있나요?” 당테스기 물었다. “편지를 전하러 파리에 기려고 그런가?” 모렐이 물었다. “네, 결혼도 하려고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메르세데스가 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 어요.” “축하하네, 당테스! 물론 자넨 휴가를 받을 수 있네. 하지만 서둘러 오게. 배는 선장 없이 오래 있어선 안 되니까.” 모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모렐 씨? 제가요? 파라옹 호의 선장이라 고요?” 당테스는 매우 기뻐했다. “그래, 당테스. 자, 가서 아버지를 뵈고 메르세데스를 보게. 그리고 나 서 나와 저녁 먹으러 오게.” 모렐이 말했다. 당테스가 배에서 내리자, 당글라르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 당테스가 파라옹 호의 새 선장이 된다는 것에 관한 부분을 들었다. 당글라르의 얼굴 표정은 당테스와 모렐의 표정과는 달랐다. 그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 [ 제2장 ] 함정

**p. 26-27** 당테스는 그의 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급히 걸었다. “얘야! 집에 왔구나!” 당테스의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아들을 보자 기뻐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당테스 기 말했다. “르클레르 선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죠.” “나쁜 소식 이구나, 얘야.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선장이었는데.”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 냐?”

“아버지, 르클레르 선장님이 돌아가신 뒤 이렇게 빨리,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착잡해요. 하지만 전 파라옹 호의 선장이 될 거예요!” 당테스가 말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구나, 얘야. 넌 훌륭한 선장이 될 거야.” 당테스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만 실 할게요.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하거든요.” “아, 그래.” 당테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의 새 신부와 잘 만나거라.”

**p. 28-29** 당테스는 메르세데스의 집에 다가가자, 그녀를 불렀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갑자기, 안에서 기뻐하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어요, 당테스! 여기예요!” 메르세데스는 그에게 달려가며 대답했다. 당테스는 그녀를 두 팔로 껴안았다. 잠시 동안 나머지 세상은 사라졌다. 두 연인에게서 서로만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당글라르가 근처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어떤 계획을 생각하느라 바빴다. 그는 당테스가 선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메르세데스와 당테스는 당글라르가 술 마시고 있는 노천 카페 옆을 지나갔다. 당테스는 메르세데스와 즐겁게 얘기하느라 그를 보지 못했다. “이젠 선장이라고 친구들에게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 당글라르가 물었다. “아니. 난 그저 메르세데스와 얘기하고 있느라 자넌 보지 못했어.” 당테스가 대답했다.

**p. 30-31** “결혼식은 언젠가?” 당글라르가 인사도 하지 않고 물었다. “곧.” 당테스가 대답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서두르는군!” 당글라르가 말했다.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거죠, 선장님?”

“난 아직 선장이 아니네.” 당테스가 대답했다. “내가 파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린 서두르고 있어. 그 후에 모델 씨의 인정을 받아 난 선장이 될지도 모르네.” “파리? 자네가 왜 파리에 가야 하나?” 당글라르가 물었다. “르클레르 선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 될 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네. 그 때문에 내가 파리로 가는 거야.” 당테스가 설명했다. 그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글라르를 믿지 않았다. “우리 결혼식에 꼭 와야 하네.” “물론이지.” 당글라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넌 절대로 파리에 가지 못해. 그리고 절대로 내 선장이 되지도 않을 거야.”

**p. 32-33** 당글라르는 빌포르 판사에게 편지를 썼다. 빌פור는 마르세유에 있는 왕의 판사였다. 그는 판사에게 자기가 ‘왕의 친구’라고 말했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당글라르는 편지를 통해 판사에게 당테스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 그는 당테스가 왕의 적이며, 나폴레옹이 파리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당테스가 갖고 있다고 썼다. 그는 판사에게 당테스를 체포해서 그를 심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테스가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나폴레옹의 비밀 편지가 당테스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당글라르는 사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했다. 그는 곧 파라옹 호의 선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p. 34-35** 이틀 후, 당테스와 메르세데스는 결혼식을 올렸다. 모두 그곳에 있었다 – 모델, 당글라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가족. 결혼식이 끝났을 때, 갑자기 경찰과 네 명의 병사들이 도착했다. “누가 에드몽 당테스입니까?” 경찰이 물었다. “제가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당신은 빌포르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당글라르는 놀라는 척했다. “하지만 왜요?” 모델과 당테스가 동시에 물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함께 갑시다.”

당테스는 경찰과 병사들과 함께 떠났다. 그는 메르세데스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글라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지 못했다.

### [ 제 3 장 ] 배신당하다

**p. 38-39** 경찰과 병사들은 당테스를 빌포르 판사에게 데려갔다. 판사는 당테스를 쳐다보았다. “자네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가?” “전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전 모델 씨의 상선들 중 하나인 파라우 호의 항해사입니다.” “병사들이 갔을 때, 자네는 어디에 있었나?” 판사가 물었다. “전 제 결혼식에 있었습니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그는 걱정스러웠다. 지난 며칠 동안은 아주 행복했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있었고, 파라우 호의 선장이 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자네가 나폴레옹을 위해 일한다고 쓰여 있는 편지를 여기 가지고 있네.” 판사가 말했다. “자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쓰여 있네. 자네가 왕을 죽이고 나폴레옹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일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p. 40-41** “위험하다고요? 제가요?” 당테스는 놀랐다. “전 겨우 스무 살이에요. 전 배에서 일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나폴레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 최근에 엘바 섬에서 그를 보지 않았단 말인가?” 판사가 물었다. “그를 만났습니다.” 당테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저의 선장님인 르클레르 선장의 마지막 명령이었죠. 그분이 죽기 전에 저에게 엘바 섬으로 가서 나폴레옹을 만나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절할 수 있었습니까?”

빌פור는 당테스의 입장을 이해했다. “자넨 정치에 관심 없다고 단지 죽어가는 선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말이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네.” 빌포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전 정치나 나폴레옹에 관심 없어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전 제 의무를 다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p. 42-43** “그럼, 그 편지는 어떻게 되었나?” 빌포르가 물었다. “파리로 갈 그 편지는 어디에 있나?” “판사님이 갖고 계 니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판사님의 부하들이 저를 체포할 때 가져갔습니다.” “편지를 갖고 오게.” 빌פור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만약 그 편지가 위험하지 않다면, 자넨 결혼식에 돌아갈 수 있네.”

병사들은 빌포르에게 그 편지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 편지는 아주 위험했다! 만약 그 편지가 파리에 도착한다면, 왕과 빌포르에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테스가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말할 것을 빌포르는 기억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왕에게, 그리고 빌포르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당테스를 감옥에 넣는 것이다. 당테스는 빌포르가 편지를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편지에 뭐라 쓰여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웠다. 빌포르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

**p. 44-45** 갑자기 빌포르가 그 방의 난로 속으로 편지를 던졌다. “내 말 듣게. 이제 편지는 사라졌네. 그것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누구든지 이 편지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에게 나와 얘기하라고 말하게. 이제 난 자네를 오늘 밤까지 이곳 범정에 수감하겠네. 그 다음에 자네는 나가게 될 거야. 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오오! 고맙습니다, 판사님.” 당테스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메르세데스와 자기 아버지를 곧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병사를 따라가

게.” 빌포르가 명령했다. “그가 자네를 돌볼 걸세.”

당테스는 병실을 떠나 방에서 나와 법정의 다른 구역으로 갔다. 당테스는 작은 감방으로 인도되었다. 병사는 그를 안에 가두고 떠났다. 그는 어둠 속에 혼자 있었지만, 여전히 빌포르를 믿었다. “기다리지만 하면 곧 풀려날 거야. 오늘 밤 난 메르세데스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될 거야.”

**p. 46-47** 몇 시간 후, 병사들이 돌아왔다. 이제 밤이었다. 병사들이 오자, 당테스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제 그는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신 병사들은 그를 작은 배로 데려갔다. “질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당테스가 물었다. “빌포르 판사님이 전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넨 집에 가고 있는 거야.” 한 병사가 대답했다. “저 섬에 있는 감옥이 자네의 새 집이지. 빌포르 판사님이 자넨 거기로 데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네.” 당테스는 병사들이 자기를 데려가고 있는 그 섬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감옥이었다. 그곳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과 왕의 적들만을 위한 곳이었다. 갑자기 그는 아주 두려웠다.

**p. 48-49** 당테스가 그 섬에 도착하자, 감옥 병사들 중 한 명이 그를 마중 나왔다. 그는 그를 작은 감방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자게.” 그가 말했다. 당테스는 혼자였다. ‘내가 이 섬을 떠나게 될까?’ 그는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까? 아니면 메르세데스를?’ 그는 너무나 슬펐다.

다음 날 아침, 간수기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죄수! 괜찮나?” 간수기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당테스가 대답했다. “전 교도소장을 뵙고 싶어요.” 간수가 웃었다. “그가 널 보고 싶어 하면, 그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네가 그를 보고 싶어 하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그리고 나서 간수는 떠났다.

날마다 똑같았다. 간수가 와서 당테스에게 빵과 물을 주며 괜찮은지를 물었다. 얼마 후, 당테스는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그만두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섬을 떠나게 될까?

#### [ 제 4 장 ] 37호

**p. 54-55** 몇 주가 지났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당테스는 그의 감방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각, 사각, 사각.” 당테스 밑 어딘가에서 그 소리가 났다. 다른 죄수가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땅을 파내고 있었다. 당테스는 자신의 감방 벽을 만져 보았다. 돌이 오래되었고 약했다. 그는 연장을 찾으려고 자신의 감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물 단지를 들어 올리고는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가장 날카롭고 튼튼한 조각들을 가졌고 나머지는 바닥에 두었다. 당테스는 다음 날 아침 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물 단지를 떨어뜨렸소. 사고였어요.” 간수는 새 단지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낡은 단지 조각들을 가져가지 않고 떠났다.

**p. 56-57** 당테스는 땅을 파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침대 뒤의 한 장소를 발견했다. 그는 침대를 옮기고 파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침내 커다란 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폭이 0.5미터가 넘는 구멍이 생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커다란 돌을 다시 갖다 놓았

다. 간수가 그의 저녁 식사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테스는 희망을 기졌다.

그날 밤 늦게 그는 또 다시 파기 시작했다. 구멍은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벽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는 똑같이 단단한 부분에 닿았다. 그것은 또 다른 벽 같았다. 마침내 그는 고통과 분노로 외쳤다. “아아, 이제 날 죽게 해 줘. 나에겐 희망이 없어.”

**p. 58-59** 바로 그때, 밑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규하는 자는 누군가? 자넨 누군가?” “난 당테스라고 합니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불쌍한 죄수요. 당신은 누구죠?” “나? 난 아무도 아니요. 그냥 당신과 같은 죄수지.”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당테스가 물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감옥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할 겁니까? 여긴 섬이라고요.”

“난 바다에 뛰어들어 근처의 섬으로 헤엄쳐 갈 거라네.” 그 죄수가 대답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면... 그냥 37호라고 부르게. 이제 난 가야 하네.” “잠깐만요!” 당테스가 외쳤다. “돌아오세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당테스는 수년 동안 간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걱정 말게.” 죄수가 대답했다. “내일 돌아오겠네.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나 땅 파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게.” 그리고 그 남자는 얘기를 멈췄다.

**p. 60** 다음 날 아침, 당테스는 그 남자가 돌아올지 궁금해 하며 자기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 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37호 죄수였다. 당테스는 땅 밑에 대고 얘기했다. “제 말 들리세요? 전 여기 있어요.” “그래, 들리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난 자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자네한테 가겠네.” 시간이 얼마간 지났다. 당테스는 37호가 자기 밑에서 땅 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바닥 한쪽이 뚫렸다. 당테스는 달려가서 내려다보았다. 그는 밑에 있는 그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몸을 아래로 뻗어 그 남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왔다. 당테스는 그 남자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는 늙고 체구가 작았으며 긴 턱수염을 길렀다. 그는 강해 보이지도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검은 눈에는 힘이 있었다.

**p. 62-63**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린 저 구멍을 가려야 하네.” 그 남자가 말했다. 그는 돌과 흙을 여기저기 옮겼다. 방에는 빛이 많지 않아서 구멍을 가리는 것은 쉬웠다. “자.” 그 남자가 말했다. “내가 떠나면 자넨 이와 똑같이 구멍을 원래대로 해놓아야 하네. 어느 누구도 그걸 발견하게 해서 안 돼. 절대로.”

다음에 그 남자는 당테스에게 자기를 당테스의 감방 꼭대기에 있는 작은 창문까지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올라가자, 그 남자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매우 슬퍼 보였다. “이젠 끝이야. 난 시방으로 파 보았지만, 그 중 어느 쪽도 우리를 내보내 주지 못해. 우린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당테스가 물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난 파리아라고 하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난 1811년부터 이 감옥에 있었지. 탈출하려고 다른 길들을 파 보았지만, 모두 막혀 있어.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p. 64-65** “당신은 수년 동안 도망치려고 애썼는데, 방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군요. 하지만 당신은 아주 침착해 보여요.” 당테스가 말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파리아가 말했다. “나의 새 친구와 얘기하면서 잠시 바깥에 대해서는 잊는 게 낫지.” “그런데 당신은 왜 감옥에 있죠?” 당테스가



물었다. “난 이탈리아에서 왔네.” 그 남자가 대답했다. “이탈리아는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어. 난 우리가 그고 강한 하나의 국기기 되기를 원했지. 하지만 내기 모시던 왕이 나를 배신했다네. 그래서 이제 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야.”

당테스와 파리아는 날마다 얘기했다. 그들은 굴을 이용해서 감방에서 감방으로 조용히 다닐 수 있었다. 간수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올 뿐이었다. 그들은 둘 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친구가 생겨서 기쁠 뿐이었다.

**p. 66-67** 노인인 파리아는 아주 현명했다. 날마다 그는 당테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쳤다. 당테스는 프랑스,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에 대해 배웠다.

어느 날, 파리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당테스에게 금과 보석들의 엄청난 보물에 대해 얘기했다. 파리아는 예전에 어느 추기경을 위해 일했다. 추기경의 가족은 부유하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돈을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숨겼다. 추기경이 죽자, 그는 파리아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그러나 그 돈을 손에 넣기 전에 파리아는 제보되었다. 그 돈이 어디에 숨겨졌는지는 이제 파리아만 알고 있었다. 그가 죽으면,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당테스는 늙은 파리아의 슬픔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기는커녕 가난한 죄수일 뿐이었다. 게다가 파리아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p. 68-69** 몇 년이 더 지났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이 되었다. 어느 날, 파리아는 건강이 아주 나빠진 후, 당테스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했다. 그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파리아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그 돈을 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테스를 아등바등 사랑했다. 당테스가 그 돈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기쁠 것이다. 그는 당테스에게 그 돈이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에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 섬의 유일한 강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 안에 묻혀 있었다. 그는 당테스가 그 위치를 완벽히 복창하게 했다.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보물은 자네 것이야.” 파리아가 말했다.

몇 달 후, 마침내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파리아는 약간 튼튼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 날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죽을 때, 당테스는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당테스는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매우 슬펐다.

**p. 70-71** 얼마 후, 간수가 저녁식사를 가져왔을 때, 당테스는 파리아가 생각났다. “그들이 그분에게 무슨 짓을 할까? 꼭 알아야 해.” 그는 구멍을 열고 파리아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돌을 통해 얘기를 들으며 바로 바깥에서 기다렸다. “늙은이가 마침내 죽었군.” 한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게, 그가 죽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오늘 밤 시체를 끄집어내게.”

몇 분 후, 모두 떠났다. 당테스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파리아의 시체는 형짚 자루 속에 있었다. 당테스는 서글피 그 자루를 만져 본 후, 자기 감방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감방에 혼자 앉아서 당테스는 매우 슬퍼했다. 그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그의 생각은 점점 빨라졌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한참 후에 당테스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파리아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날카로운 단지 조각을 가지고 갔다.

**p. 72-73** 파리아의 방에서, 그는 시체가 담긴 자루를 열었다. 그는 파리아에게 사과를 한 후, 시체를 자신의 갑방으로 기저갔다. 그는 파리아의 시체를 자신의 침대 속에 놓고 그의 얼굴을 덮었다. 간수가 오면 당테스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파리아의 방으로 달려가 자루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자루 속에서 그는 가장 날카로운 단지 조각을 쥐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간수들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루를 들어서 바깥으로 운반했다.

바깥에 나오자, 당테스는 시원한 바다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매우 불안했고 아주 흥분되었다. 몇 분 걷고 난 후, 간수들은 그 자루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는 밑에 있는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테스는 간수들이 자루에 뭔가를 묶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꽤 무거운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루를 들어서 그를 공중으로 던졌다! 그는 자신이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자루가 물 속으로 침범 들어갔다.

**p. 74-75**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당테스를 놀라게 했다.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육중한 물체가 그를 빠르게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루를 잘랐다. 마침내 자루가 열렸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위로 헤엄쳤다. 그는 물 위에서 재빨리 숨을 쉰 후, 다시 물 밑으로 잠수했다.

어두웠지만, 그는 간수들이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가능한 한 멀리 물속에서 헤엄치고 난 후 숨을 쉬었다. 한참 동안 이런 식으로 헤엄치고 숨을 쉰 후에 그는 멈췄다. 그는 그 섬을 뒤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르세유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는 수영을 잘 했지만, 감옥에서 보낸 세월 때문에 약해졌다. 그는 결코 마르세유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달빛 아래서, 그는 배 한 척을 보았다. 그 배는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이게 나의 유일한 기회야.' 그는 생각했다. '이 배가 날 돕지 않으면, 난 죽게 될 거야.'

**p. 76-77** 당테스는 소리 질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물 속으로 작은 보트를 내렸다. 작은 보트가 그를 향해 왔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보트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배를 잃은 뱃사람입니다." 당테스가 대답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손 하나가 뻗어 내려와 그를 물 밖으로 잡아당겼다. 당테스는 보트 안으로 떨어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추워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배 위에서 깨어났다. 그는 선장에게 자신은 뱃사람이라고 말했다. 선장은 당테스가 탈옥한 죄수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당테스에게 배에서 일을 해보라고 말했다. 선장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당테스는 배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숨씨는 훌륭했다. 그래서 선장은 그가 그냥 뱃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 당테스는 탈출했다!

## [ 제 5 장 ] 대부호 몽테크리스토

**p. 80-81** 당테스는 배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날마다 돈,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메르세데스에 대해 생각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배가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향했다. 당테스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일단 섬에 오르자, 당테스는 배의 일행들을 두고 떠났다. 그는 파리아가 설명했던 대로 강으로 가서

그것을 따라갔다. 그 노인이 말한 대로, 그는 몇몇 돌 위에 있는 표시들을 발견했다.

그 표시는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게 틀림없었다! 당테스는 흥분되었다. ‘파리아는 정말로 돈이 많았구나!’ 그는 혼자서 생각했다. 당테스는 그 돌들을 따라갔다. 파리아가 말한 대로, 그는 곧 어떤 동굴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장소를 찾은 것 같았지만, 그곳은 아주 어두웠다. 보이는 거라고는 커다란 돌들뿐이었다.

**p. 82-83** 그때 당테스는 파리아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보물은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작은 방 안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커다란 돌들을 몇 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그는 또 하나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는 빛이 많지 않았다.

그때 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들 안을 보았다. 파리아가 옳았다! 각 상자마다 금과 반지와 보석들이 있었다. 당테스는 이렇게 많은 돈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는 새 선장을 좋아했지만, 그 돈을 비밀로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황금과 반지만 가져갔다. 그것은 많은 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옷 속에 그것을 숨길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p. 84-85** 그리고 나서 당테스는 들어갔다. 베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다. 그들은 그에게 어디 갔는지 물었다. 돌을 옮기는 그 모든 일이 당테스를 피곤하고 더러워 보이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괜찮은지를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선장이 떠나려고 서둘러서,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도시로 떠났다.

그 도시에 오자, 당테스는 반지 몇 개를 팔았다. 몇 개 되지 않는 반지가 그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선장에게 자기는 떠나서 마르세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테스가 떠나는 것을 보니 선장은 아쉬웠다. 그는 당테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당테스는 새 옷과 혼자 조종할 수 있는 작은 보트를 구입했다. 그는 새 보트를 타고 다시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향했다.

**p. 86-87** 당테스는 몽테크리스토 섬의 동굴로 돌아가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왔다. 그것은 부유한 귀족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내가 백작이라고 말해야지,’ 당테스가 생각했다. ‘마르세유의 어느 누구든 날 본 지 수년이 지났어. 그들은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당테스는 그 돈과 새 보트로 마르세유로 다시 향했다.

그 도시에 도착하자, 그는 새 보트를 정박시키고 세관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일하는 남자를 알아 보았지만, 그 남자는 당테스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관 직원이 물었다.

“몽테크리스토.” 당테스가 대답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요.” 그 남자는 당테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테스의 새 보트를 보았다. 그는 부자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마르세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당테스는 자유롭게 갔다.

**p. 88-89**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시고, 메르세데스는 그의 사촌과 결혼해 마르세유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너무나 슬펐다. 또한 그는 당글라르와 빌포르 판사에게 화가 났다. 그는 당글라르와 빌포르 판사가 그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아주 오랜 계획이었지만, 당테스에게는 시간이 많았다.

감옥에서의 오랜 세월은 그에게 인내심을 기르쳤다. 게다가 피리이는 그에게 세상에 관한 많은 유용한 것들을 가르쳤다. 복수하려는 그의 계획은 몇 년이 걸렸다. 당테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당글라르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 당테스의 계획으로 당글라르는 아주 가난해졌다. 당테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빌포르 판사는 아주 유명한 판사가 되었다. 그래서 당테스는 그 판사를 그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계획을 이용했다. 결국 빌포르 판사는 미쳐서 더 이상 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다.

피리아의 죽음은 당테스에게 새로운 삶과 복수를 둘 다 가져다 주었다.